

## 농어촌공사, 제30회 대원상 시상식 개최

- 30년간 이어온 효행·봉사·존중 문화 확산 -



(사진설명) 한국농어촌공사는 '제30회 대원상 시상식'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9일 가정의 달을 맞아 '제30회 대원상 시상식'을 개최하였다.

대원상은 김영진 前 사장의 사재 출연을 시작으로 효행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, 효도 정신과 이웃사랑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사만의 전통있는 시상이다.

이번 시상식에서는 십 수년간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간병한 ▲한기준 차장 ▲김형상 과장 ▲박유영 대리가 수상하였다.

이병호 사장은 “개인주의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효행과 봉사

는 공사 임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는 사례”라며 “오늘 시상식을 계기로 세 분의 선행이 많은 임직원에게 알려져 공사 내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총무인사처<br>인사부 | 책임자 | 부 장 | 최진백 (061-338-5991) |
|       |              | 담당자 | 대 리 | 모희경 (061-338-6002) |